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Day1현대시] 수능특강 81P 연계

(가)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경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 「성에꽃」

(나)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대상을 감각적, 비유적으로 그려내어 화자의 감흥을 자아낸다.

② (나)는 공간 속 화자의 행위와 내면 고백을 통해 성찰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③ (가)는 관찰과 상상을 통해, (나)는 고백적 진술과 사유로 화자 내면을 드러낸다.

④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난 ‘나’를 통해 경험과 사유를 전달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성찰로 절대적 평온을 얻는 과정을 보인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이 응축된 결정체로, 화자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② ㉡은 화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상실감 극복의 결과를 명시하고 있다.

③ ㉠은 덧없이 사라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 그러한 애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④ ㉠은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통해 얻은 미적 쾌감을, ㉡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화자의 실존적 불안감을 상징한다.

⑤ ㉠은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은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 세계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혹한이라는 배경과 대비를 이루며 성에꽃이 지닌 아름다움이 화자에게 강렬하게 인식됨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② ㉣은 성에꽃의 외양뿐 아니라 그것이 형성된 과정에 담긴 미세한 인간적 숨결까지 함축하여 표현한다.

③ ㉤은 버스 창외 불안정한 상태를 묘사하여, 창에 어린 얼굴의 고단함과 화자가 떠올리는 친구의 어려운 처지를 암시적으로 연결한다.

④ ㉥은 상실의 대상이나 방향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화자의 능동적 행위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⑤ ㉦은 사는 것은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을 찾는’ 행위와 분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적 화자는 일상의 경험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가)의 화자는 차가운 현실의 단면인 버스 차창의 성에꽃을 매개로 타인의 삶을 성찰하고 그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연대감을 모색한다. (나)의 화자는 ‘길’ 위에서의 상실과 탐색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존재의 근원적 의미와 방향성을 고뇌하며 궁극적인 자아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 ①(가)에서 화자가 성에꽃을 ‘전람회’에 온 듯’ 여기며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한 것은,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부터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에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② (나)에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적 시간 속에서 상실된 자아를 찾기 위한 고투가 지속됨을 암시하는군.
- ③ (가)의 ‘이마를 대고 본다’는 행위는 성에꽃에 담긴 타인의 삶의 체취를 직접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의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는 자신의 내면적 고뇌와 무관하게 펼쳐진 순수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화자의 겸허한 자기반성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고 한 것은 개인적 관계의 단절을 넘어 사회적 아픔으로 공감의 범위가 확장됨을, (나)에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요’는 현재의 자아와 분리된 본질적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⑤ (가)의 화자가 ‘성에꽃 한 잎 지우고’ 들여다보는 행위는 타인의 삶에 대한 피상적 관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나)의 화자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서는 모습은 상실의 아픔을 망각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타내는군.

[Day1] 수능특강 243P 연계

(가)

어와 번방(藩邦) 저 왜놈아 네 하는 짓 보아 하니
예로부터 간사쿠나
흉중에 무슨 생각 그림 옷을 입고 와서
대마도를 바라보니 바람 실어 오는 배들 적의(敵意) 분명 네로구나
허리 위로 불작시면 투구 갑옷 위엄이나
마음속을 굽어보니 흉계(兇計) 가득 못 믿으리
진시황 보낸 방사(方士) 동남동녀 어디 가며
서불(徐市)이 데려간 아희놈들 몇 리 가서 장성하리
내 나라의 충의로운 백성 사람 타국 땅 옮겨 살면
귀히 되기 어렵거든 제 본성을 아니 고쳐
너희 또한 그러하면 천벌(天罰) 받아 망하리라
예로부터 이른 말이 동래 울산 그 지경에
왜놈들이 드나들 제 아무렇게나 약탈하니
칠팔 년 묵은 원한 ㉠일장검을 갈게 하고
구시월 쌓인 분노 북을 치며 외치거늘
태평 시 공덕 잊고 은혜 또한 갚지 않고
그 나머지 사나움이 흉악하기 짝이 없다
다시금 이 땅으로 쳐들어와 노략질코자
흉계 꾸며 보는구나 이 땅 백성 어찌 살꼬
어와 장수인지 줄개인지 그대 하는 말 그만 두고
이 내 설움 들어 보소 이내 몸은 늙고 병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시니 진동영 내려온 지 삼 년이라
관방 중지 지키면서 병이 깊다 누웠으랴
보국 충정(報國忠情) 이 한 몸은 칼을 차고 배에 오르니
기운 없는 노쇠한 몸 간담(肝膽)만이 부엌도다
조총(鳥銃)이며 장편전(長片箭)들 내 손으로 만들었나
이 배 저 배 타는 수졸(水卒) 내 한 몸이 다 먹이나
삼시 세때 밥 먹이며 봄옷 여름옷 해 입히랴
해마다 나라 공물 이 배에다 실어내니
저 많은 군량미를 나 혼자 당할쏘냐.

—박인로, 「선상탄」

(나)

동네 사람들아 저 개 보소 저 개 보소 알밋다
미운 사람 오게 되면 두 발을 번뜻 들고 꼬리치며 반기거든
내 사랑하는 님 오시면 담 너머로 짚어대니
요 알미운 개를 어이할꼬
끓여 삶아 ㉡안주할까 날 잡아 매어둘까
동네 웃음 되리로다

—작자미상, 「사설시조」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행위가 지속될 시의 부정적 결과를 가정하여 예견한다.
- ③ 설의법을 반복 사용하여 어려운 처지에 대한 화자의 한탄을 강조한다.
- ④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여러 지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그리고 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닌 구국의 신념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심정을 집약적으로 상징한다.
 - ② ㉠은 과거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은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 ③ ㉠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려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해학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수단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재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대상물이다.
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시가에 나타난 화자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 및 가치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공적 세계를 다루는 작품의 화자는 종종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여 개인적 고뇌를 드러내면서도 공동체적 규범이나 이념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때로는 그러한 규범에 대해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편, 사적 세계를 다루는 작품의 화자는 일상의 소소한 경험 속에서 개인의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때 보편적 정서에 기대어 공감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난 개성적 인식이나 예기치 않은 반응을 통해 당대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가 “늙고 병든 몸”에도 “보국 충정”을 외치는 것은, 공적 세계의 이념에 순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자세로군.
- ② (나)의 화자가 “끓여 삶아 안주할까”라며 개에 대한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적 세계의 불만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군
- ③ (가)에서 화자가 공적 책무 중 개인적 “설움”을 토로하는 것은 공적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나타나는 개인적 고뇌를 보여주는군.
- ④ (나)에서 화자가 개의 차별적 행동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동네 웃음 되리로다’라며 마무리하는 것은, 보편적 감정에 기반한 개성적 반응이군.
- ⑤ (가)의 화자가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자신의 “설움”을 토로하는 것은, 공적 세계의 규범에 대한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이군.

[Day1] 현대소설 (수능특강 159P 연계)

내 방은 유난히 한적했다. 나는 이 방에서 기억조차 없는 유년 시대를 보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마치 요람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아내는 이런 나를 위하여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가는 곳과 돌아올 시간을 미리 알려 주어 나의 초조를 최소한으로 줄여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내의 배려가 오히려 나를 더욱더 방안에 고립시키는 올가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내 또한 말해주지 않았다.

아내는 밤에 외출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아내는 내 머리맡에 얼마간의 돈을 놓고 갔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 사 먹고, 외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외투도 한 벌 해 입으시고요. 아내는 틀림없이 내가 낮 동안 외출하여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없는 동안 거의 방에 틀어박혀 아내가 남기고 간 돈을 세거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거나, 아니면 아내의 밤 외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상상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내에게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두는 기묘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일종의 허전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돈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한 불쾌한 의혹은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도무지 나오지를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 때 나는 아내의 방을 살짝 엿보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문틈으로 아내의 동정을 살피면 아내는 그때마다 반드시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빗고 있었다. 나는 또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내의 화장지를 휴지통에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품 병마개를 죄다 열어 놓고 아내의 브로치를 감춰 버리고…… 이런 유치한 장난을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그만 쾌감을 느꼈다.

나는 가끔 아내 몰래 외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번번이 나는 현관을 나서자마자 다시 방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현란했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린이와 같았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역시 나의 방뿐이었다.

(중략)

그리하여 나의 존재와 아내의 존재, 그리고 이 방이라는 공간에 대한 나의 사색은 날이 갈수록 더 **기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갔다. 나에게 이제 나만의 독특한 세계 인식 방법론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현실과 괴리되고, 발 디딜 곳 없는 허공을 부유하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나는 또 다시 그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나의 이 기묘한 사색을 더욱더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이 비정상적인 존재 상태를 합리화하고, 아내와의 불투명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며, 그 속에서 기만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듯이.** 나의 세계 인식 방법론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이다…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거대한 부조리극이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처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물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다… 나의 이 방은 바로 그러한 침잠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며, 아내가 제

공하는 돈은 그 최소한의 조건이다...

나는 어느덧 이러한 명제들을 설파하는 **고독의 철학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내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하며 이 기묘한 방구석 철학에 몰두한 지 꼭 일 년이 되는 가을날 오후였다. 나는 물론 나의 이러한 존재 방식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만족하거나 편안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여전히 아내의 외출과 돈의 출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밀어 넣곤 했다. 그 대신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고독 철학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한 신념을 지니게 되었다.

그럴 즈음이었다. 나는 문득 아내의 외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잦아졌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것이 일종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다시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의혹에 휩싸였다. 아내의 외출에 대한 나의 관심 역시 이전부터 막연하게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나로 하여금 그런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아내에게서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그 빈도뿐 아니라 외출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상적인 패턴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아내의 외출이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이제 그걸 변명 삼아 나의 방구석 철학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혹은 아내의 부재를 이용하여 금지된 외출을 감행하려는 은밀한 욕망을 키우기도 하였다. ㉡아내의 부재가 만들어 내는 그 기묘한 자유와 불안이 나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이한 도착이었다.

-이상, 「날개」

8. ㉠~㉡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특정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과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등장인물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되, 그 발화에 담긴 이면적 의도를 서술자가 분석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복합적 심리를 요약적으로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 특정 시간적 배경을 구체화하면서, 그 시점이 인물의 내적 성숙이 완료되는 결정적 계기임을 분명히 한다.
- ⑤ ㉡: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 과정을 여러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점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9. ‘아내의 돈’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 ‘나’가 잃어버린 과거의 순수성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물로,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내적 여정을 자극한다.
- ② ‘나’와 아내 사이의 왜곡된 관계와 ‘나’의 기생적 삶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주인공의 심리적 고립과 내면 분열을 심화시킨다.
- ③ 주인공 ‘나’가 사회적 존재로 각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현실 극복의 동기를 부여한다.
- ④ ‘나’와 아내 사이의 애정 관계에 놓인 장애물을 상징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숙을 이끌어 낸다.
- ⑤ 주인공 ‘나’가 물질만능주의적 세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각성의 도구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강화한다.

10. ‘나’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자신의 기형적인 존재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독특한 ‘세계 인식 방법론’을 구축해 나간다.
- ② ‘나’는 아내가 주는 ‘돈’의 출처에 대해 불쾌한 의혹을 품으면서도, 그 돈에 의존하는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 ③ ‘나’는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는 현상을 통해 자신의 ‘고독 철학’이 현실과 유리되었음을 깨닫고 점차 이를 포기하게 된다.
- ④ ‘나’는 ‘방’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고립되어 세상과 단절된 자신에 대해 갑갑증을 느끼기도 한다.
- ⑤ ‘나’는 ‘아내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기묘한 자유와 불안 속에서 일상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도착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날개」의 주인공 ‘나’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며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는 종종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자신만의 관념 세계를 구축하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나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당대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소외된 자화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의 ‘날개’에 대한 갈망은 이러한 현실에서의 탈출과 새로운 존재로의 비상을 꿈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나’가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 관계의 실체에는 무지한 ‘나’의 면모를 보여주는군.
- ② ‘나’가 아내 부재 시 “방에 틀어박혀 돈을 세거나 상상을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자신만의 관념 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이겠군.
- ③ ‘나’가 세상을 “현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 “방”만을 안식처로 삼는 것은, 소외된 지식인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으로 침잠하는 모습이겠군.
- ④ ‘나’가 “비정상적인 존재 상태를 합리화”하려 “세계 인식 방법론”을 만드는 것은, ‘무기력한 지식인’이 관념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로군.
- ⑤ ‘나’가 아내의 잦은 외출에 “은밀한 욕망을 키우기도” 하는 것은, ‘날개’ 갈망이 아내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존재로의 비상’을 향한 실천적 준비를 의미하겠군.

[Day1] 고전소설 (수능특강 19P연계)

[앞부분의 줄거리] 전우치가 뛰어난 도술로 기이한 행적을 보이자, 임금의 전우치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린다. 위관(委官)이 군사를 이끌고 전우치의 집에 당도하나, 전우치는 이미 도술로 가짜 자신을 만들어두고 피신한 상태이다. 위관은 가짜 전우치를 잡아 임금 앞에 바친다.

임금이 대경하여 좌우 신하더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전우치에게 친히 국문하시되 ‘네 일개 야인이 되어 어찌 요망한 도술을 부려 세상을 현혹하며 국법을 능멸하느냐. 바르대로 아뢰지 아니하면 중죄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엄히 꾸짖으시니, 이때 가짜 전우치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히 여쭙오되, “소인이 비록 야인이나 본디 심성이 어질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사옵니다. 다만 미관말작이나마 벼슬을 얻어 성상의 덕화(德化)를 만방에 퍼고 백성을 구제코자 하였으나 길이 막연하옵기로 부득이 도술을 잠깐 시험하여 소인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다른 뜻은 없사오니 밝게 살피소서.” 한데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왈, “네 죄 이미 명백하거늘 어찌 이리도 변명이 많은고. 네 만일 진실로 충의로운 신하가 될 마음이 있었다면 정당한 길을 따랐어야 하거늘, 어찌 요술로써 임금을 기만하고 조정을 희롱하려 하느냐. 이는 필부의 장난이 아니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대역죄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참수하여 모든 사람의 경계로 삼으라.” 할 즈음에, 이때 형리들이 달려들어 전우치를 결박하여 형장으로 끌어내려 하거늘, 전우치 문득 소리하여 왈, ㉠잠깐 형을 멈추시오. 아뢰 말씀이 있나이다. 하며 임금께 다시 아뢰되, ㉡하늘의 뜻이라면 세 번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시험하여 보소서.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왈, “요망한 놈이 죽을 때가 임박하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네 말이 과연 그러한지 시험해 보리라. 여봐라, 저놈의 목을 치되 반드시 세 번 안에 베도록 하라.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너희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다.” 하신대, 도부수(刀斧手)가 분부대로 칼을 높이 들어 전우치의 목을 내리치니, 첫 번째 칼은 허공을 가르고, 두 번째 칼은 땅을 치며 부러지고, 세 번째 칼을 들어 치려 하니 전우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홀연 짚으로 만든 인형만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지라. 그 참혹한 광경이라기보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임금과 모든 신하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소리치되, “당장 요망한 저 놈을 찾아내어 결박하고 산 채로 가두어 다시는 요술을 부리지 못하게 하라!” 분부하시니, 군사들이 궁궐 안팎을 살살이 뒤졌으나 전우치의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이윽고 한 신하가 숨이 차서 달려와 급히 아뢰되, “지금 남대문 문루 위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임금님 계신 곳을 향해 손짓하며 크게 웃고 있사운데, 그 모습이 틀림없는 전우치이옵니다.” 한데 임금이 이를 듣고 더욱 진노하여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치시기를, “괘씸한지고, 저놈이 감히 과인을 이리도 능멸한단 말이나. 당장 군사를 총동원하여 남대문을 포위하고 한낱 미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저놈을 산 채로 잡아들여 내 앞에서 그 요망한 술법의 근원을 실토하게 하라!” 하시니, 수많은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남대문으로 달려갔다. 과연 전우치가 문루 위에서 임금과 조정을 비웃듯 유유자적하게 앉아 있는지라. 군사들이 사다리를 놓고

기어오르며 잡으려 달려들자 전우치는 홀연히 푸른 학으로 변하여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며 외쳐 왈, “어리석고 무도한 임금이며, 나의 신통한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죽이려 하였으니 이제 그 앙갚음을 받으라.” 하고는 큰 바람을 일으켜 궁궐의 기왓장을 날리고 큰 나무들을 뽑으니, 궁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더라. 임금이 하릴없이 전우치를 놓아주고 후회막급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는지라. 이후 전우치는 팔도를 유람하며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등 많은 이적을 남기었다고 하더라.

-작자 미상,<전우치전>

12.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전우치가 임금의 명령 집행을 지연시키고, 이어질 ㉡의 발언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② ㉠에 이어지는 전우치의 발언은 자신의 죽음이 인간의 손이 아닌 천명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초월적 존재감을 부각하는군.
- ③ ㉡에서 전우치가 ‘시험하여 보소서’라고 한 것은 자신의 도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임금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겠군.
- ④ ㉡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전우치의 제안에서 왕권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감지했으나, 그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하고 시험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⑤ ㉡의 예고가 현실로 드러난 후에도 임금이 전우치를 재차 체포하라는 명령하는 것은, 초월적 현상 앞에서 실추된 통치자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군.

13. 도술 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금은 전우치의 도술을 통해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그를 중요한 직책에 등용한다.
- ② 도술은 전우치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을 때,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③ 전우치는 도술을 사적인 이익 추구나 개인적인 원한 해결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④ 도술은 전우치가 봉건적 질서의 부조리와 지배층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조롱하고 응징하는 핵심 능력이다
- ⑤ 도술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우려와 반발로 인해, 전우치는 결국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은둔하게 된다.

14. 윗글에 나타난 ‘전우치’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금의 절대적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호소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 ②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과시하고 임금의 권위를 조롱함으로써, 위협적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반전시킨다.
- ③ 위기의 심각성을 과장하여 임금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함을 가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 ⑤ 제삼자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주변 인물들과 연대하여,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위협에 조직적으로 대항한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Day2] 현대시 + 수필 (EBS 262P 연계)

<보기>

<전우치전>과 같은 고전 영웅 소설 속 주인공은 종종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당대 사회의 지배층이나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는 과장되거나 신화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기지와 해학, 그리고 민중의 바람을 대변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때로는 주인공의 능력이 개인적인 복수나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발현되어 단순한 오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주제 의식의 깊이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① 전우치가 임금의 국문 상황에서 도술 사용의 명분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은, ‘지배층에 맞서는’ 영웅의 면모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전우치가 세 번의 칼날에도 상처 없이 사라지고 쥔 인형을 남기는 처형 장면은, 영웅의 모습이 ‘과장되거나 신화적으로 그려’지는 소설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군.
- ③ 남대문 문루 위에서 임금을 조롱하고 학으로 변해 바람을 일으키는 전우치의 행위는, ‘위기 상황에서의 기지’와 ‘해학’이 드러나는 한편, 그의 능력이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보여주는 군.
- ④ 전우치의 행적이 임금에 대한 개인적 회통과 궁궐 소란에 집중되어 있어, ‘단순한 오락성을 추구’함에 따라 작품의 ‘주제 의식의 깊이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겠군.
- ⑤ 지문 말미에 전우치가 이후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했다는 서술은, 영웅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오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서만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군.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집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웅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켜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찔랑찔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썰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찔랑찔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나)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러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젓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다)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손(客)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이미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여 얼굴을 비칠 수도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소.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어찌된 일요?”

거사가 말하기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맑고 아롱진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이요**.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효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효가 많으니, 만일 잘생긴 사람이 한 번 보기 때문에 그 효용을 잃지 않는다면야 깨뜨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길 것이요. 하물며 많은 못생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싫어함이 없으니,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이 어찌 그 공이 아니겠소?

㉞흐린 거울은 때가 끼어서 속까지 비쳐 보이지는 않소. 만일 때를 벗겨 버리고 맑은 광채를 내게 된다면 보는 사람마다 모두들 제 얼굴의 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싶어 할 것이요. 그러니 먼지로 흐리게 하여 그 빛을 감추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소?

먼지가 그 바깥은 흐리게 할 수 있지만 그 맑은 바탕까지 능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요.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뒤에 닳고 갈더라도 닳지 않을 것이요**. 아! 옛사람이 거울을 본 것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였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그 흐린 것을 취하기 위함**이요. 그대는 무엇을 꾀이하게 여기사요?”

하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鏡說)」

1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당대 현실의 모순을 고발한다.
 ② 과거의 특정 사건을 회상하며 현재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한다.
 ③ 관찰한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얻게 된 성찰적 인식을 드러낸다.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걱정을 표출한다.
 ⑤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유년 시절의 순수했던 삶을 동경한다.

17. (가)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갈매나무’와 (나)에서 화자가 잊지 못하는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매나무’는 화자가 현재의 절망적 상황에서 발견한 위안과 의지의 표상이고, (나)에서 ‘그곳’은 화자가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절대적 그리움의 대상이다.
 ② ‘갈매나무’는 화자가 과거에 누렸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나)에서 ‘그곳’은 화자가 현재 느끼는 정신적 공허함을 대변한다.
 ③ ‘갈매나무’는 화자가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안주하려는 소극적 공간이며, (나)에서 ‘그곳’은 화자가 미래의 재회를 기약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④ ‘갈매나무’는 화자의 현재의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며, (나)에서 ‘그곳’은 화자에게 이별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공간이다.
 ⑤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초월적 세계를 의미하고, (나)에서 ‘그곳’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18. ㉠~㉞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가족 및 생활 터전과 분리되어 현재 자신이 처한 유랑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② ㉡은 시간적 배경과 함께 혹독한 외부 환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립감과 쓸쓸함을 고조시킨다.
 ③ ㉢은 낮선 공간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는 모습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불안정한 처지를 드러낸다.
 ④ ㉤의 ‘새김질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반복적으로 성찰하며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⑤ ㉞에서 ㉞으로의 심리 변화는,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외로움 속에서 대상을 차분히 사유하는 상태로 이행함을 나타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정지용의 「향수」는 고향의 다채로운 풍경과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감각적인 이미지와 토속적 정감을 통해 그려내며, 상실한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각 연은 독립된 장면을 제시하면서도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며, 화자의 정서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대한 회상에서 비롯된 현재의 간절한 그리움으로 집약된다. 시에 나타난 고향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화자의 정서적 근원이자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된다.

- ① ‘넓은 벌’,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등은 고향의 풍경을 다채로운 ‘감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겠군.
- ② 각 연의 끝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가 반복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장치이겠군.
- ③ “흙에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라는 구절은, 고향이 ‘화자의 정서적 근원’이자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동경의 대상임을 보여 주는군.
- ④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사철 밭 벗은 아내”의 모습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구체화하며 정겨운 가족 공동체의 삶을 환기 하는군.
- ⑤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의 묘사는, 고향이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미화된 과거 기억의 허구성을 깨닫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전환점이겠군.

2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느끼는 고향의 평화로움을, ㉡는 글쓴이가 지닌 자기 합리화의 태도를 각각 단적으로 보여준다.
- ② ㉠는 변하지 않는 고향의 본질적인 가치를, ㉡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글쓴이의 위선적 면모를 각각 암시한다.
- ③ ㉠는 화자의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 과거의 한 장면을, ㉡는 글쓴이의 독창적 사유를 촉발하는 일상의 사물을 각각 가리킨다.
- ④ ㉠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는 세속적 명예를 중시하는 글쓴이의 현실적 욕망을 각각 드러낸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 또는 글쓴이가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심리를 반영하는 대상이다.

21.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여러분, 이규보의 「경설」은 거사가 흐린 거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손님과의 문답을 통해, 사물의 가치와 인간의 자기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거울의 ‘흐림’과 ‘맑음’이라는 대조적 속성을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연결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다] 글을 다시 한번 감상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학 생: [A]

선생님: 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 ① 거사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결점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지적한 것이겠네요.
- ②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이 어찌 그 공이 아니겠소?’라는 거사의 발언은, 일반적인 단점도 관점에 따라서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군요.
- ③ 거사가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뒤에 닳고 갈더라도 닳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사물의 본질적 가치는 잠재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겠네요.
- ④ 손님이 처음 ‘흐린 거울’의 쓸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물의 외양이나 통용되는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 ⑤ 거사가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그 흐린 것을 취하기 위함이에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불완전한 존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요.

[Day2] 고전시가 + 수필 (수능특강 300P 연계)

(가)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홀은 시름 아니 하니,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이야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性)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알으실사,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토리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중략)

세상 벗님네야 이 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옛사람 풍류(風流)를 미칠가 못 미칠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한 이 하건마는, 엇지타 ㉡청운지사(靑雲之志) 전혀 없어 십장홍진(十丈紅塵) 무를 쓰고, 백발(白髮)이 되도록 공명(功名)만 하려 하고 ㉢처자(妻子) 생각 세간(世間) 근심 전혀 아니 잇는 것가.

(중략)

술 익고 벗이 오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취하여 누웠으니 잠이 절로 들었구나. 창(窓) 열고 바다 보니 달빛만 고요하다. ㉣속세 번뇌(煩惱) 잊었으니 이 또한 즐겁도다.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는 풍월(風月)이 임자 없으니, 나도 또한 임자로다. 어즈버 이 내 몸이 신선인가 하노라. ㉤물욕 없이 살려 하니 이 또한 욕심인가. ㉥격양가(擊壤歌)* 부르면서 태평성대 자축하니, 이 몸이 이렇구렁 지내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단표누항: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그리고 누추한 거리라는 뜻으로, 소박한 삶을 이르는 말.

*십장홍진: 열 길 높이의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이르는 말.

*격양가: 요 임금 시절 태평성대를 노래한 중국의 민요.

(나)

수오재(守吾齋)는 나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당호이다. 나는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가장 밀접한 것은 나인데,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키지 않은들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었다.

내가 장기(瘡癘)의 땅으로 귀양 와서 홀로 지내면서, 어느 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벌떡 일어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유독 나의 본성(本性)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 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수 있겠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典)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나의 옷이며,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나의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야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美人)의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가 버린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지 못할 나는 오직 ‘나’뿐이다. 그러니 어찌 삼가지 않고 굳게 엮어매고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지키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 어렸을 적에는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 그것을 공부하느라 10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朝廷)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대낮에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12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鳥嶺)을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조(先祖)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는 **명하니 앓아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지켜야 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비록 불모로 잡혀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반드시 나를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중략)

오직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守吾)’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아! 슬프도다. 맹자(孟子)께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이제야 체득하게 되었다.

정약용, 「수오재기」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양한 사례의 열거를, (나)는 의미가 대비되는 대상들을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태도 변화를 드러낸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 속에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와 사실감을 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어조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낙천성을 보인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과거에 품었을 법한 세속적 입신양명에 대한 미련을 함축한다.
- ② ㉡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인간적 그리움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어 세속의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화자가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조차 욕심일 수 있다는 성찰을 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소박한 즐거움을 태평성대에 대한 만족감과 연결 짓는 표현이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속세를 떠나 자연과 완전히 동화된 상태를, ㉡는 글쓴이가 지닌 본성의 선함이 외물에 의해 쉽게 변질됨을, ㉢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각각 나타낸다.
- ② ㉠은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이상을, ㉡는 외부의 유혹에 취약하여 쉽게 본래 모습을 잃는 자아를, ㉢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회복해야 할 주체적 자아를 각각 의미한다.
- ③ ㉠은 화자가 느끼는 자연에서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는 글쓴이가 경계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는 글쓴이가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각각 집약한다.
- ④ ㉠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화자의 완전한 초탈을, ㉡는 외적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하는 글쓴이의 정체성을, ㉢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자아의 모습을 각각 보여준다.
- ⑤ ㉠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일시적인 감흥을, ㉡는 글쓴이가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는 글쓴이가 큰형님을 통해 발견한 이상적 인간상을 각각 요약한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 후, 이를 일반적인 인간의 삶과 유추하여 논지를 확장하고 있다.
- ② 문답의 구조를 활용하여 핵심 화두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쓴이의 심화된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반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는 두 대상의 비교를 통해,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성찰의 근거로 삼아, 독자에게 자아 수양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며, 특정 공간이 주는 성찰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의 「출새곡」은 세속적 공명에 대한 미련과 자연에 귀의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점차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태도를 보이는 과정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충의(忠義)와 연군(戀君)의 정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유지된다.

(나)의 「수오재기」는 글쓴이가 ‘나’를 지키는 것[守吾]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외물(外物)의 유혹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라고 한 것은, <보기>에 나타난 세속적 가치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자연 속 삶을 수용하려는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군.
- ② (나)에서 글쓴이가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는 ‘나’의 속성을 언급한 것은, <보기>의 ‘외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성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이 몸이 이렇구렁 지내움도 역군은(亦君恩)이 샷다”라고 한 것은, <보기>의 자연 속 안분지족의 삶 속에서도 ‘연군의 정’을 중요한 가치로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④ (나)에서 글쓴이가 큰형님은 ‘수오재’에 거하며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았다”고 한 것은, <보기>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모범을 통해 ‘나’를 지키는 가치를 부각하는군.
- ⑤ (가)의 화자가 ㉢에서 “속세 번뇌 잊었으니”라고 한 것과 (나)의 글쓴이가 ㉡에서 ‘나’를 “붙잡지 못할” 존재로 규정한 것은, 모두 <보기>에서처럼 현실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상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군.

[Day2] 현대소설 - 비연계

바람 없는 늦가을 햇빛만이 교교하던 며칠 전의 일이었다. 뒷집 수협생 형이 아버지에게 무슨 부탁을 했기에 아버지는 나를 불러 자전거를 태워 보냈다. 수협생 형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서 무슨 불 일을 보고 곧 돌아올 터이니 자전거포 옆에 가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 형은 그 전날 시내에 갔다가 자전거를 도둑맞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나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자전거포 집 큰아들은 나보다 한두 살 위인데 벌써 어른 행세를 하며 자전거포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포 앞에 세워 둔 수협생 형의 자전거에 기대앉아 그 애가 하는 일이 신기해서 한참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신사가 자전거를 사러 왔다. 그 신사는 자전거를 이것 저것 타 보더니 그중 제일 값싼 것을 골라 돈을 치르고는 구멍가게 쪽으로 타고 갔다. ㉠얼마 후 자전거포 아이가 자기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이 벌어졌다. 자전거를 사 간 신사가 구멍가게에 들른 동안 자전거를 도둑맞았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길길이 뛰면서 아이의 따귀를 올리고 발길로 차고 했다.

“저놈이 자전거를 팔아먹고 도둑맞았다고 둘러대는구나. 에미야, 저놈 오늘 죽여라.”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감싸고돌면서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나는 눈을 딱 감았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아이 아버지는 마치 약이라도 오른 사람처럼 사나웠고, 그 불뚱이 내게로 될 것만 같아 여간 조마조마한 게 아니었다. 수협생 형이 내게 맡긴 자전거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나는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 틈에 슬그머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협생 형에게는 형이 시킨 대로 잘 지켰노라고 거짓부령을 했다. 나는 내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자전거를 도둑맞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겹겹으로 나를 포위하고 다가오는 시꺼먼 그림자가 무서워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꿈 때문에 시달렸고, 자전거포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했다. 그럴 때마다 가게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이 아버지의 호통 소리와 아이의 울음 소리는 내 양심을 몹시도 찢어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런 가책도 좀 무디어 갔다. 그까짓 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그 아이를 길에서 만났다. 통통 부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혹시 나를 의심하고 뒤쫓아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다. 그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너 때문이야. 내가 거기 없어서 아빠한테 더 맞았어.”

나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아이의 등이 가엾어서 가만히 끌어 주었다. 그때였다. 내 호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손가락 끝에 이상한 것이 잡혔다. 돈이었다. 꾸깃꾸깃한 천 원짜리 몇 장. 나는 깜짝 놀랐다. 며칠 전 수협생 형이 오백 원짜리 과자를 사 먹으라고 천 원을 주었을 때, 가게 주인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내준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돈을 받고도 아무 생각 없이 호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것이다.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했다. ㉣나는 그 돈을 당장 자전거포 아이에게 주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싶은 유혹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돈을 자전거포 아이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한참이나 망설였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

다. 그 돈은 내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전보다 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전거포 앞은 물론, 그 아이와 마주칠까 봐 골목길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밤이면 어김없이 시꺼먼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었고, 나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박완서, 「자전거 도둑」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신사의 자전거 구매는 지켜보았으나, 자신의 소홀함으로 발생한 도난의 전말은 뒤늦게 파악하게 된다.
- ② 자전거포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추궁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한다.
- ③ ‘나’는 길에서 만난 자전거포 아이의 딱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
- ④ 수협생 형은 자전거 도난 이후 ‘나’의 불안한 기색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 ⑤ 나’는 자전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더해, 우연히 얻은 돈을 돌려싼 새로운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며 심적 고통이 깊어진다.

28. ㉠~㉤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및 심리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객관적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나,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상황임을 암시하며 이후 전개될 내적 갈등의 복선으로 작용한다.
- ② ㉡은 자신의 간접적 과실로 인해 겪는 죄책감이 악몽, 특정 장소 회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민한 자각 등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은 자신의 잘못이 폭로될 수 있다는 급작스러운 위기감 속에서, 상대의 행동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서술자의 불안 심리를 드러낸다.
- ④ ㉣은 도덕적 의무와 개인적 욕구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며, 결국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이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불안과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서술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음을 암시한다.

29. ‘자전거포’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나’의 행위와 심리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자전거포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하며 수협생 형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
- ② ‘나’는 자전거포 아이가 겪는 불행이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도, 아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 ③ ‘나’는 자전거포 앞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우연히 생긴 돈 문제로 인해 새로운 도덕적 갈등에 놓인다.
- ④ ‘나’는 자전거포 아이에 대한 일시적인 연민과 더 받은 돈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이익을 단호하게 선택한다.
- ⑤ ‘나’는 자전거포에서 비롯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성숙한 존재로 변화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에 등장하는 소년 서술자 ‘나’는 종종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때로는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독자는 서술자의 제한된 시각과 진술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의 의미와 인물의 심리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하게 된다.

- ① ‘나’가 “수험생 형에게는 형이 시킨 대로 잘 지켰노라고 거짓부렁을 했다.”고 한 것은, <보기>의 서술자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용하는 ‘자기 방어기제’의 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가 자전거 도난 후 “그까짓 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한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서술자의 심리 ‘합리화’ 경향을 보여주는군.
- ③ ‘나’가 길에서 만난 자전거포 아이의 “등이 가없어서 가만히 쓸어 주었다.”고 한 것은, <보기>의 ‘미성숙한’ 서술자가 순간적인 연민을 느끼지만, 근본적인 책임 인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양면성을 드러내는군.
- ④ ‘나’가 거스름돈을 발견하고 “한참이나 망설였다.”고 직접 서술한 것은, <보기>의 ‘제한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 갈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군.
- ⑤ ‘나’가 돈을 갖고 달아난 후 악몽에 시달리는 결말은, 서술자의 ‘자기 합리화’가 성공하여 내적 평온을 찾았음을 <보기>의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군.

[Day2] 고전소설 (수능특강 121P 연계)

[앞부분의 줄거리] 고아가 된 숙향은 사향의 집에 의탁하나, 사향의 모함으로 인해 도둑 누명을 쓰고 매를 맞는다. 이후 사향은 숙향이 정절을 잃었다고 다시 모함하여 숙향은 관아로 끌려가게 된다. 태수는 숙향에게 자백을 강요한다.

태수 대정하여 좌우 나졸더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숙향에게 친히 국문하시되 ‘네 일개 천한 계집이 되어 어찌 음풍(淫風)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도리어 하늘을 속이려 하느냐. 바른대로 아뢰지 아니하면 네 몸에 형벌을 가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리라.’ 하고 엄히 꾸짖으시니, 이때 숙향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정숙히 머리 숙여 여쭙오되,

“소녀 비록 ㉠미천한 몸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유리개걸(流離丐乞)하와도 하늘의 뜻을 거역하거나 인륜을 어지럽힌 죄는 추호도 없사옵나이다. 다만 박복하여 모함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소녀의 결백은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이옵나이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털끝만큼의 허물도 없사오니 밝게 살피소서.”

한데 태수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왈,

“네 죄 이미 드러났거늘 어찌 이리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요사스러운 말로 나를 농락하려 하느냐. 네 만일 진실로 순결한 처녀였다면 어찌 심야에 외간 남자와 내통하였으며, 또한 관아에 끌려와서도 이리 당돌할 수 있겠느냐.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실이요, 관장을 능멸하는 죄까지 더하였으니 네 죄 무겁도다. 당장 저년을 형틀에 묶고 엄형을 가하여 모든 아녀자의 경계로 삼으라.”

할 즈음에, 이때 형리들이 달려들어 숙향의 양팔을 결박하여 형틀로 끌어내려 하거늘, 숙향이 문득 눈물을 머금고 소리치며 왈,
“잠깐 형을 멈추어 주십시오. 소녀 마지막으로 아뢰 말씀이 있나이다.”

하며 태수께 다시 애절히 아뢰되,

“하늘이 굽어보시매 저의 정절은 반드시 증명될 것이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태수 그 말을 듣고 가소롭다는 듯이 왈,

“요망한 계집이 죽을 때가 임박하니 별 해괴한 말로 시간을 끌려 하느구나. 네 정절을 어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나. 여봐라, 지체 말고 속히 형을 집행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너희 또한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신대, 형리가 분부대로 형장(刑杖)을 높이 들어 숙향의 등을 내리치려 하니, 첫 번째 때는 허공을 가르고, 두 번째 때는 땅에 떨어지며 부러지고, 세 번째 매를 들어 치려 하니 숙향의 몸은 온데간데없고 홀연 ㉡오색구름 한 조각이 숙향이 꿇었던 자리를 감싸더니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지라. 그 신비하고도 엄숙한 광경에 태수와 모든 관속들이 할 말을 잃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경악함을 금치 못할 따름이었다. 태수가 정신을 차리고 크게 두려워하며 소리치되, “이는 필시 인간이 아니요, 하늘이 내리신 선녀(仙女)가 죄 없이 모함을 받은 것이로다. 어서 저 구름을 향해 용서를 빌고 숙향 낭자의 누명을 벗겨 칭송하라!” 분부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허공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으나 오색구름은 이미 하늘 멀리 사라져 그 형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이윽고 한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아뢰되,

“지금 관아 뒤뜰 매화나무 가지 위에 오색 찬란한 봉황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숙향 낭자를 수호하는 듯 기이하옵나이다.” 한데 태수 이를 듣고 더욱 황공하여 용상에서 내려와 예를 갖추려 하

니, “꽤 씹한지고, 죄 없는 처녀를 능욕하려 하였으니 네 어찌 무사하리요. 내 너의 죄를 하늘에 고하고 모든 백성에게 너의 포악함을 알리리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오는지라. 과연 숙향의 목소리였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잠시 후 매화나무 위의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큰 바람을 일으켜 관아의 기왓장을 날리고 대들보를 흔드니, 관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더라. 태수가 하릴없이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후회막급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는지라. 이후 숙향은 ㉠하늘의 도움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 정절과 지혜는 길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하더라.

-작자미상 <숙향전>

31.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숙향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낮춰 말함으로써 진술의 진정성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 ② ㉡은 인간 세계의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숙향의 위기가 초월적 힘에 의해 해소되는 극적인 전환을 나타낸다.
 - ③ ㉢은 숙향이 겪은 모든 고난과 갈등이 결국 인과응보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준다.
 - ④ ㉠의 호소와 ㉢의 결과는 숙향의 도덕적 울골음이 시련 끝에 결국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 ⑤ ㉡의 등장 이후에도 태수가 숙향에 대한 의심을 즉시 거두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신중한 성격을 나타낸다.

32. 결백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숙향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 ② 결백에 대한 숙향의 믿음은 주변 인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이끌어낸다.
 - ③ 숙향이 자신의 결백을 하늘에 호소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불의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반영한다.
 - ④ 태수는 숙향이 주장하는 결백의 근거를 찾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명령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 ⑤ 결백은 숙향이 겪는 핵심적인 갈등의 원인이자, 그녀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숙향전>과 같은 고전 소설은 종종 고난을 겪는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높은 도덕성과 지혜,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시련은 당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이나 부조리를 반영하기도 하며, 초월적 개입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민중의 소망을 투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인물들은 선과 악의 대립 구도 속에서 평면적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입체적인 심리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기도 한다.

- ① 숙향이 태수의 위협적인 국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은, <보기>의 ‘높은 도덕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의 면모를 보여주는군.
- ② 숙향이 형벌 직전에 ‘오색구름’과 ‘봉황’의 등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에 해당하겠군.
- ③ 태수가 처음에는 숙향을 엄하게 다스리려다 초월적 현상을 겪은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기>의 ‘평면적 성격’의 인물이 상황에 따라 ‘입체적인 심리’ 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숙향이 겪는 시련의 과정은, <보기>에서처럼 재능과 덕을 갖춘 여성이 부당한 모함으로 고통받는 ‘당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작품의 결말에서 숙향이 ‘모든 누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 정절과 지혜는 길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한 것은, 현실의 한계를 초월한 정의 실현에 대한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Day3] 현대시 수능특강 263P 연계

(가)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路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무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툽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
지저귀지 않아도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①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①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新婦)여,
②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③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④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3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특정 소재에 화자의 영혼을 투영하여 중심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 ② (가)는 외부의 폭력으로 인한 황폐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나)는 대상의 규정 불가능성에서 오는 화자의 불안감을 청각적으로 암시한다.
- ③ (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나)는 상호 소통을 통한 존재 의미의 실현을 간접히 바라는 어조를 보인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내적 독백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35. (가)의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훼손된 자아로 현실에 맞서며, 생명력 있는 예술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려는 화자의 강인한 저항 의지를 나타낸다.
- ② 외부 세계의 폭력성에 동화되어, 화자 자신이 더욱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로 변모했음을 비유적으로 암시한다.
- ③ 화자가 처한 극한의 고통과 절망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에 이른 심정을 집약한다.
- ④ 문명의 억압을 벗어난 자연 본연의 거칠고 원초적인 생명력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강렬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타인에게 극적으로 드러내어, 그들로부터 정서적 위안이나 연민을 얻고자 하는 심리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화자는 억압적 현실 속에서 훼손된 자아의 모습을 ‘북가시나무’에 투영하여 그 고통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미래에는 생명력과 나눔의 가치를 담은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표출한다. (나)의 화자는 언어(이름 부르기)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행위는 대상을 화자의 인식 틀 안에 포섭하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으며, 진정한 상호 관계는 일방적인 명명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눈짓’을 통해 가능함을 시사한다.

- ① (가)의 화자가 “흠집투성이 몸통뿐”인 ‘북가시나무’를 언급한 것은, 억압으로 인해 훼손된 자아의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군.
- ② (나)의 화자가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라고 한 것은, 언어적 명명 이전의 대상은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임을 나타내는군.
- ③ (가)의 화자가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쓰겠다고 한 것과, (나)의 화자가 ‘너’를 “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모두 ‘창조적 행위’ 또는 ‘언어 행위’를 통해 자아 또는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화자는 ‘북가시나무’가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한다고 표현하여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의 화자는 ‘너’를 ‘꽃’으로 명명함으로써 대상을 자신의 언어적 인식 체계 안으로 온전히 포섭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시 쓰기는 억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순수 서정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며, (나)의 화자가 갈망하는 ‘눈짓’은 언어의 개입 없이도 가능한 존재 간의 완전한 합일을 의미하는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나)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 부여의 문제를 언어와 관련지어 탐구한다. 시인은 명명(命名) 행위를 통해 비로소 대상이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러한 언어적 규정이 지닌 잠재적 폭력성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방적 명명을 넘어선 상호 주체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① ㉠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은 대상의 순수한 본질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경외감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의 언어적 노력이 대상을 이상적인 존재로 변용시킬 수 있다는 창조적 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 ③ ㉢은, 언어가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언어의 절대적 위상을 드러낸다.
- ④ ㉣은, 과거의 성공적인 명명 행위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을 포기하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반영한다.
- ⑤ ㉤은, 언어적 명명을 통해 형성된 주체와 객체의 고정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Day3] 고전시가 수능특강 249P연계

(가)

㉠ 꿈에 뵈는 님이 아니 신의(信義) 없다 하건마는
탐탐(耽耽)이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 보리
저 님아 꿈이라 말고 자로자로 뵈시소서

<제1수>

정성(精誠)이 미진(未盡)하야 꿈에 겨우 만났더니
옥안(玉顔)은 반갑지만 말씀은 ㉡ 못내 설워
인간(人間) 이별(離別)을 꿈에조차 싫어라 하노라

<제2수>

옥황(玉皇) 상제(上帝)께 ㉢ 만리장천(萬里長天) 멀다 마라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어디 간들 없을쏘나
우리 님 그린 뜻은 추천(九天)에 미치리라

<제3수>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나)

건곤(乾坤)이 폐색(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한 빛인 제,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 옥루고처(玉樓高處)*
더야 더욱 닐러 무슴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계신 데 쏘이고저.
모침(茅簷) 비췌 해를 옥루(玉樓)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미고 취수(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수죽(日暮脩竹)에 험가람도 하도 할샤.
다른 해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곁에 전공후(筵篋)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탁बाट 비겨시니,
양금(養枕)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설흔 날,
저근딛 생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매쳐 이셔 골수(骨髓)의 깨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 이 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찰하리 식어디여 범나뵈 되오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안니다가,
향(香) 무든 날애로 님의 오세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출려 하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옥루고처: 임금이 계시는 대궐 높은 곳.
*일모수죽: 해 질 무렵 긴 대나무.
*전공후: 악기 이름.
*편작: 중국 고대의 명의.

38.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어조를 반복하여, (나)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격앙된 심정을 표출한다.
- ② (가)는 독백과 대화가 교차하며, (나)는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나)는 계절의 순환에 따른 정경 묘사로 애상감을 심화한다.
- ④ (가)는 이상적 공간에 대한 동경을, (나)는 과거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고,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보인다.

39.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현실에서의 부재하는 임을 꿈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드러낸다.
- ② 꿈에서의 만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임의 언행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임과의 만남이 어려운 것을 자신의 부족한 정성 탓이라 여기며, 임의 변심 가능성에 절망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임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정이 궁극적으로 임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 ⑤ 화자는 꿈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에서조차 임과의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시가에는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의(忠義)를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 이러한 작품에서 ‘임’은 종종 초월적이거나 이상적인 존재로 그려지며, 화자는 ‘임’과의 단절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 슬픔, 그리고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정성을 통해 ‘임’에게 다가가려 하거나,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안타까움이 드러나기도 하며, 이는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임을 “자로자로 뵈시소서”라고 반복하여 소망하는 것은, ‘임과의 단절 상황’에서 비롯된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표출로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화자가 임에게 따뜻한 “양춘(陽春)”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신의 정성을 통해 임에게 다가가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③ (가)의 화자가 자신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을 강조하는 것과 (나)의 화자가 자신의 병이 “이 님의 타시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는군.
- ④ (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깊은 병을 명의조차 고칠 수 없다고 탄식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임과의 만남이 요원함을 깨닫고 느끼는 깊은 ‘안타까움’이겠군.
- ⑤ (가)의 화자가 꿈속 임의 말씀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과 (나)의 화자가 나비가 되어 임에게 다가가려는 것은, 모두 ‘임’이 지닌 위엄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절대적 거리감과 그로 인한 체념을 반영하는군.

41. (가)의 ㉠과 ㉡, (나)의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은 화자가 현실을 초월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관계의 표상이며, ㉡은 그러한 도달의 지난함을 강조하는 광활한 공간적 배경이다.
- ② (나)의 ㉢는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향성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며, ㉣은 그 지향으로 인해 발생한 화자의 극한적인 심리 상태를 집약한다.
- ③ (가)의 ㉠과 (나)의 ㉣에서 환기되는 정서는 모두, 화자가 현실에서 직접적 교감을 이루기 어려운 부재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 ④ (가)의 ㉡과 (나)의 ㉢는 각각 화자와 임 사이의 단절감을 시각적으로 부각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내적 의지를 역설적으로 강화한다.
- ⑤ (가)의 ㉠을 향한 화자의 태도와 (나)의 ㉣에 담긴 화자의 심정은 모두, 대상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그에 대한 변함없는 귀속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Day3] 현대소설 비연계

(가)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려 본 기억이 없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림 속에서나마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나는 추하고 상처받은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 혹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붓은 언제나 그 소망의 언저리에서 맴돌다 끝났고, 완성된 화폭은 늘 나에게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방일 뿐, 내가 갈망하던 그 어떤 초월적인 것도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내 그림에 역겨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증오였을지도 모른다.

동생의 그림은 나와는 달랐다. 녀석은 언제나 자신만만한 필치로 대상을 단숨에 포착해 내는 듯했다.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는데,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표정과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그런 재능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어쩌면 녀석의 그림이 너무나 현실을 닮아 있으면서도 그 현실의 고통이나 상처는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녀석의 그림은 현실의 아름다운 껍질만을 능숙하게 복제해 낸, 일종의 기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어쩌면 그건 내가 갖지 못한 재능에 대한 시기심일 수도,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일 수도 있었다. 나는 녀석의 그림에서 어떤 생명력이나 현실감 대신, 잘 만들어진 인형 같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 그 공허함은 그러나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나는 종종 그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형, 이 그림 어때? 이번 공모전에 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새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젊은 여인의 초상화였다. 모델은 틀림없이 헤인이었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내가 아는 헤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을 담고 있던 헤인의 그늘진 눈매는 사라지고, 어떤 관념적인 아름다움만이 천사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헤인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헤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내 기억 속의 헤인은 늘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치던 존재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그늘진 눈빛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상실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동생의 그림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린 듯했다. 녀석은 헤인의 그 절박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헤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가 남긴 상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녀석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터였다. 그저 대상의 아름다운 외양만을 포착하여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데에만 몰두했을 것이다. 그것이 녀석의 한계이자, 어쩌면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녀석만의 강점일지도 몰랐다. 동생은 아마도 헤인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혹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헤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배신처럼 여겨졌다.

“왜 말이 없어, 형? 별로야?”

나는 녀석의 캐묻는 듯한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아니, 좋아. 아주 잘 그렸어. 꼭 입선할 거다.”

그것은 물론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동생의 그 재능과 그림에 대한 경멸감과 함께, 어쩌면 나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대한 질투심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왜 녀석

처럼 대상을 저렇게 단순하고 아름답게만 그릴 수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언제나 현실의 어둡고 추한 이면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어쩌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것을 후벼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동생에게는 없는,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명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감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헤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동생의 그림 속에 박제된 듯한 그녀의 미소가 번갈아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어쩌면 예술이란 한갓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아니다, 나는 그러야 한다.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록을.’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동생의 그림이 지닌 예술적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작품에 담긴 현실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한다.
- ② 동생은 형의 예술적 고뇌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그림에 대한 형의 진솔한 평가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 ③ ‘나’는 헤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④ ‘나’는 자신의 예술적 지향과 동생의 재능 사이에서 갈등하며,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예술의 길을 고뇌 끝에 선택한다.
- ⑤ ‘나’는 동생과는 다른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했지만, 그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

43.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한 것은, 예술적 이상 실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극심한 자기혐오감을 드러내는군.
- ② ‘나’가 동생의 그림 속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고 인정한 것은, 동생의 기술적 재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일부 작용했음을 보여주는군.
- ③ ‘나’가 동생의 헤인 초상화를 “헤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여기는 데에는, 대상의 본질을 중시하는 ‘나’의 예술관이 반영되어 있군.
- ④ ‘나’가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것을 후벼 파는 행위를 반복”한다고 성찰하는 것은, 예술 행위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군.
- ⑤ ‘나’가 예술을 “한갓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절망하다가도 그러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은, 예술을 통한 현실 도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군.

44.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청준의 소설 속 인물들은 종종 관념적인 이상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세계관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뇌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 변화나 성찰의 과정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주관적 인식이나 관념이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 ① ㉠은 ‘나’가 추구하는 예술적 이상이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좌절되면서, <보기>의 ‘현실의 벽’에 직면하여 느끼는 깊은 자괴감을 드러내는 군.
② ㉡은 동생의 예술이 현실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나’의 주관적 인식 이, <보기>의 ‘관념이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의 가능성을 동생에게서 찾는 것이군.
③ ㉢은 ‘나’가 자신이 기억하는 혜인의 본질과 동생의 그림 사이의 괴리를 통해, <보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예술로 재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절감하는군.
④ ㉣은 ‘나’가 동생의 재능과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비교하며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보기>의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기 연민으로 귀결시키는군.
⑤ ㉤은 ‘나’가 예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도, <보기>의 ‘고뇌’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계속 탐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군.

- [Day3] 고전소설 (수능특강 249P 연계)

[앞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불도에 정진하던 중 세속의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잠시 품게 되고, 이를 간파한 스승 육관대사의 도술로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하여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공명을 누린다. 여덟 명의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영화로운 만년을 보내던 양소유는 어느덧 자신의 삶과 세속적 성취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어느 가을날, 승상(丞相) 양소유(楊少游)는 여덟 낭자(娘子)와 더불어 취향정(醉鄉亭)에 올라 국화(菊花)를 구경하며 술을 나누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아 거나해지자, 소유가 문득 비감(悲感)한 표정으로 난간에 기대어 길게 탄식하며 옥통소로 ‘자허유(子虛遊)’ 한 곡조를 처량하게 불었다. 여러 낭자들이 그 곡조의 슬픔을 느끼고 놀라 여쭙었다.

“상공(相公)께서 오늘 풍경을 즐기시는 중에 어찌 이렇듯 슬픈 곡조를 연주하시나이까?”

소유 답하여 왈,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일은 영고성쇠(榮枯盛衰)가 서로 순환하는 것이라. 초(楚)나라 항우(項羽)와 한(漢)나라 유방(劉邦)의 영웅호걸도 결국 한 무덤 황토(黃土)가 되었고, 진시황(秦始皇)의 아방궁(阿房宮)과 한무제(漢武帝)의 무릉(茂陵)도 이제는 가을 풀만 무성하니, 인생의 부귀영화란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요 바람 앞의 등불[風前燈]과 같도다. 우리 내외(內外)가 이처럼 화락(和樂)하게 지내나, 백년 후에는 이 누대도 텅 비고 우리 또한 흙이 될 것이니, 어찌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탄식하지 않으리오. 내 차라리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수(山水) 간에 은둔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노라.”

이에 여러 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상공의 높은 뜻과 깨달음에 감복하였으니, 저희 또한 세속의 부질없는 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상공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소유가 여러 낭자들의 깊은 이해에 위안을 받고, 이튿날 모든 관직과 작위를 반납하고 가솔(家率)들을 정리한 후 홀연히 집을 나섰다.

(중략)

소유는 정처 없이 발길 가는 대로 나아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높은 산이 하늘에 닿았고 골짜기는 깊고 험준하며 물소리 또한 굉장하였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수풀 사이에 절이 하나 있는데, 육관대사(六觀大師)가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경(經)을 강론하고 있었다. 소유가 황망히 대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소자가 불초(不肖)하여 한때 마음이 어두워 스승님을 배반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부질없는 부귀공명을 탐닉하였나이다. 이제야 깨달으니, 속세의 모든 영화가 하룻밤 꿈과 같고, 인간의 정욕(情欲) 또한 허깨비와 같사옵니다. 다시 스승님 문하(門下)에 돌아와 불법(佛法)을 구하고자 하오니, 부디 어리석은 중생을 가없이 여기시어 받아 주옵소서.”

대사가 웃으며 소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왈,

“성진(性眞)아, 네가 속세의 부귀를 꿈속에서 실컷 겪었으니 이제 미련이 없겠구나. 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 것이 어찌 너 혼자만의 허물이겠느냐. 모두 나의 가르침이 부족한 탓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산에서 내려갈 때의 너와 꿈에서 깨어 돌아온 네가 과연 다른 존

재이더냐? 성진과 소유가 둘이 아니요, 꿈과 현실 또한 본래 둘이 아니니라.”
하며 손에 들었던 석장(錫杖)으로 난간을 두드리니, 여덟 선녀(仙女)가 나타나 성진을 맞이하고, 성진이 누렸던 양소유로서의 일생 부귀와 공명, 여덟 부인과의 인연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 성진이 비로소 대오(大悟)하여 스승 앞에 다시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⑩ 지난날의 모든 미망(迷妄)은 스승님의 자비로우신 방편(方便) 덕분에 씻은 듯 사라졌사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불법에 정진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나이다.
육관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네 이미 스스로 꿈에서 깨어 본성을 찾았으니, 내가 다시 무슨 말을 보태겠느냐. 네 본디 총명하고 불심(佛心)이 깊으니, 오직 정진(精進)하여 대도(大道)를 이루도록 하라.”
이에 성진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불도 수행에 힘써, 훗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왕생(往生)하였다고 한다.
- 김만중, 「구운몽」

4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소유는 노년에 이르러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고, 여덟 부인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출가를 결심한다.
 - ② 육관대사는 성진의 인간 세상 경험을 그의 미혹한 마음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엄히 질책한다.
 - ③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양소유로서의 삶과 여덟 부인들에 대한 애착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 ④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꿈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 불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굳힌다.
 - ⑤ 여덟 부인들은 양소유의 출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사상적 변화에 동참하여 함께 불문에 귀의할 것을 다짐한다.

46. 윗글에 제시된 공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취향정 누대’는 세속적 영화의 극치에서 인생의 근원적 무상감을 자각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게 되는 성찰의 공간이다.
 - ② ‘금강산’은 주인공이 세속과의 결별을 실천하고 자신의 정신적 근원과의 재회를 통해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구도의 공간이다.
 - ③ ‘연화봉의 작은 암자’는 주인공이 환몽(幻夢)으로부터 각성하여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초월적 체험의 공간이다.
 - ④ ‘인간 세상’은 주인공에게 다양한 욕망의 성취와 그로 인한 환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불교적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이중적 공간이다.
 - ⑤ ‘속세’는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가 미처 이루지 못한 공적 이상에 대한 미련이 남는 공간이다.

4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의 고뇌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음을, ㉡은 주인공이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변인들을 교화하려는 의지를 각각 보여준다.
 - ② ㉠은 주인공의 결단에 대한 지지를 통해 유교적 부덕(婦德)을 실천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은 주인공이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이전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모습을 각각 나타낸다.
 - ③ ㉠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주인공의 회의에 동조하면서도 그와 함께 현실을 떠나려는 주변 인물들의 소극적 태도를, ㉡은 주인공이 스승의 꾸짖음에 마지못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각각 드러낸다.
 - ④ ㉠과 ㉡은 모두, 주인공이 맞이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그의 결단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주변 인물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 ⑤ ㉠과 ㉡에 드러난 인물들의 발언은, 인간의 유한성과 운명적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당대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4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만중의 「구운몽」은 유교적 출세주의와 불교적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조선 시대 사대부의 복합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작품 속 주인공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공명과 애정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불교적 진리에 귀의한다. 이는 세속적 성취에 대한 긍정과 동시에 그것의 한계와 덧없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독자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① 양소유가 누렸던 세속적 성공과 여덟 부인과의 다복한 생활은, <보기>의 사대부가 한때 현실에서 추구했던 ‘유교적 출세주의’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정점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양소유가 취향정에서 “인생의 부귀영화란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요 바람 앞의 등불과 같도다.”라고 한 것은, <보기>의 ‘세속적 성취의 한계와 덧없음’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③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지난날을 “부질없는 부귀공명을 탐닉하였나이다.”라고 참회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불교적 진리에 귀의’하기 위한 자기 부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군.
- ④ ㉠에서 여덟 부인들이 양소유의 출가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는, <보기>의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적 이상’이 개인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군.
- ⑤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꿈과 현실 또한 본래 둘이 아니니라.”라고 설파한 것은, <보기>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세속적 성취 여부가 아닌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데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겠군.